

지역현안2지구 토지매각 정산에 따른 하남도시공사의 위법·부당행위 감사원 감사요청

안전 번호	1467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16. 7. 21.

제 안 자 : 박진희 의원 등7인

□ 제 안 이 유

- 2016. 7. 11. ~ 7.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역현안사업2지구 토지매각 정산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위법·부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 요청하기 위함

□ 주 요 내 용

- 「스타필드 하남」의 사업시행자인 「(주)하남유니온스퀘어」가 하남도시공사로부터 현안사업2지구 토지(117,990m²)를 매입,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정산처리 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이자 미납
 - 이자(매매계약 조건/6개월이상 적용) : 59억원
 - 정산금 납부이행최고적용(6%)시 : 23억원
- 부당사례
 - 감정평가 내용

평가날짜	평가기관	감 정 액	비 고
2011. 8월	탁상감정	1,870억원	795억 차액 발생
2012. 12월	한국감정원	2,665억원	

- (주)하남유니온스퀘어는 재감정 및 납부시기 연장(3년 / 6회)등

정산금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민원제기

- 도시공사의 범무법인 자문결과

- 사전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다시 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게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약서와 달리 후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며,

- 도시공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업무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음.

-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도 있음.

- 당시 도시공사는 감정평가 이후 대금정산을 요구하였으며

(주)하남유니온스퀘어는 재 감정을 요구하며 지체

- 도시공사는 2013.4.12. 정산금 납부최고통지(2013.5.20까지)

하였으나, 돌연 7월30일로 정한 하남유니온스퀘어 매각부지 정산계획보고를 결재 (당시의 사업처장과 사장이 진행)

※ 당시의 담당팀장은 마지막 자문은 불인정하여 기안 거부

○ 감사 필요성

- 범무법인의 1차 자문 결과 특혜 및 재산상 손실과 배임의 소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

- 당시 담당팀장을 제외하고 사업처장 및 사장이 직접 처리한 사항

- 현재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토지매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조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킴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

붙 임 :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(감사원 훈령) 1부.